

창조자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전도서 12: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2월 30일 설교

¹너는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²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³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⁴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 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⁵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⁶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⁷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⁸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현대시와 옛 이야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티 에스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붉은 바위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아침에 네 뒤에서 성큼성큼 걷는 네 그림자나/ 저녁에 너를 맞으러 일어서는 네 그림자와는/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리라./ 한 줌 흙에서 공포를 보여주리라.“

(Come in under the shadow of this red rock)/ And I will show you something different from either/ Your shadow at morning striding behind you/ Or your shadow at evening rising to meet you;/ I will show you fear in a handful of dust.

황무지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만 사정없이 내리쬐니다. 바위도 불에 데어 별걸합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이며 설 곳을 찾는데 바위 아래 그늘이 보입니다. 그리 들어오라는 속삭임도 들려옵니다. 그리 가면 뜨거운 햇볕은 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참 피난처는 못 됩니다. 대신 황무지의 바깥 모습이 아닌 안 모습,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흙과 돌이 타 들어가는 자연의 황무지 말고 인생의 황무지, 곧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끔찍한 인생을 이리 들어와 한 번 보라는 거지요.

인생의 황무지는 ‘한 줌 흙에서 느끼는 공포’로 압축됩니다. 한 줌 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쿠마의 무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아폴론이 제 신전을 지키던 무녀한테 반해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주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하고는 환심을 사려고 일단 소원부터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마침 흙덩이 하나가 곁에 보이자 무녀는 그걸 가리키면서 내 생일이 저 흙 알갱이 수만큼 많아지면 좋겠다 했습니다. 세어보니 흙이 천 개였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무녀가 천 년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녀는 마음이 변해 아폴론하고 결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폴론은 화가 나 돌아가 버렸는데 무녀가 생각해 보니 천 년을 살려면 건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얼른 아폴론에게 가서 젊음도 함께 달라 했습니다. 아폴론이 허락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천 년을 살되 남들처럼 늙어가면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몸이 찌그러져 조롱박에 갇힌 채 아이들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물었지요. “무녀야, 소원이 뭐니?” 무녀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죽고 싶어.”

이게 한 줌 흙의 공포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거면 왜 태어났을까, 그런 물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무함을 이겨보려고 아주 길게 천 년을 살고 싶다 했는데 그 소원은 이내 얼른 죽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래 산다고 다 좋습니까? 몸은 병에 걸려 힘들지요. 오래 살면 못 볼 것도 많이 봅니다. 이삭은 이백 살 가까이 살았는데 아들 둘이 원수가 된 것도 보았고 손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괴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 인생이 곧 한 줌 흙에 나타나는 공포입니다.

하루 걷는 인생

그런데 한 줌 흙의 공포를 ‘네 그림자와 다른 어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엇가 만들어낸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을 동쪽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에 비기고 있습니다. 남들도 인생을 걸음걸이에 많이 비겼지만 엘리엇는 걷는 방향을 동쪽으로 고정시키고 초점을 그림자에 맞추었습니다. 아침

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응애, 하고 울면서 힘차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태양만큼 삶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멋진 앞날을 설계합니다. 동쪽을 향해 걷고 있으니까 그림자는 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아침이니까 내 키보다 길겠지요? 나도 힘차게 걸지만 그림자는 나보다 더 성큼성큼 걸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한낮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오겠지요?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지요? 아 그런데 이게 점점 길어집니다. 우선 걱정이 많아집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그림자 길이만큼 근심도 많아집니다. 이 모든 근심 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길어지던 그림자가 해가 질 즈음에는 별떡 일어섭니다. 가만 앉아 기다리다가 “어서 와!” 하면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두가 사는 평범한 삶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루 걷고 끝납니다. 아침에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멋진 앞날을 꿈꾸다가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거운 열기를 쏟아 부을 즈음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온갖 걱정으로 정신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손가락을 놓습니다. 인생무상, 덧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덧없는 삶

엘리어트는 이 시가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오절하고 이어져 있다 했습니다. 오절은 죽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그림 뭐가 나오니까? 늙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이 먼저 나옵니다. 해가 빛나고 달과 별이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무 낙이 없는 때가 금방 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아서 이것저것 재미있게 신나게 해 보고, 꿈도 꾸고 성취도 하고, 사는 재미가 충만한데,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꿈도 없고 이를 것도 없습니다. 원욕이 그친다 했는데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 몸을 집에 비기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양팔입니다. 이게 덜덜 떨립니다. 힘 있는 자는 양다리인데 굽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땀뿜는 사람들은 이빨인데 수가 점점 적어지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 길거리 문들은 귀입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조금씩 먹습니다. 새소리에도 깰 정도로 잠을 깊이 못 자고 목마져 쇠하여 목소리마저 쉼쉼해집니다. 앞마당에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꽃이 피어 버렸습니다. 하얀 꽃이니 머리가 허엿게 세었고 메뚜기가 무거운 정도로 힘이 없어지고 원욕이 없어지니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 마지막은 뭘니까?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등잔을 맨 은줄이 끊어지고,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집니다. 물을 길던 도르래가 부러지고 거기 달려있던 두레박도 깨집니다. 몸의 핏줄, 근육, 관절, 이런 게 다 제 기능을 잃습니다. 집이 와르르 무너지듯 그렇게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몸은 영원한 집 곧 무덤으로 갑니다. 허물어진 집 주위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조문객들이지요.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도 뭘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으로 하늘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 썩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삶이 그저 하루 걷는 것처럼 덧없다는 것도 다 알고 죽으면 흙이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의 기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 흙이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사람이 본디 흙에서 왔다는 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 흙이 됩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에서 왔다고 다 흙으로 가야 됩니까? 돌아갈 거면 오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온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도 압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못 살고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중에 모세도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 90:3).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흙이 땅으로 돌아갈 때 신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신은 신약 표현으로 하면 영입니다. 이게 사실 나지요. 내가 흙으로 된 몸에 깃들여 있어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끝날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몸을 갖고 한 인생 살았던 나라는 인간, 이 주체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뭐 하러 갑니까?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게 심판입니다. 무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몸이 이미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죽었지요. 죄를 지었으니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미 유죄입니다.

한 줌 흠의 공포

이게 바로 한 줌 흠의 공포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참 허무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어 모든 게 없어진다면 그래도 겁은 안 날 겁니다. 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전 한 때는 힘차게 걸어 보았으니 미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반기는 걸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은 썩지만 영은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짧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면 쿠마의 무너처럼 천 년을 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걸 떠나 인생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걱정이나 갖가지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길든 짧은 두려움의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곧 영원의 세월이 더 문제입니다.

결국 한 줌 흠의 공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한낮이 지나면 왜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살아야 됩니까? 동쪽으로 걸어가기 때문이지요. 사실 동쪽은 희망입니다. 해가 거기서 뜹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니치 지역 교인들은 부활절 아침에 그리니치 바닷가에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린 다음 해돋이를 함께 봅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걸어가는 방향이 또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을 막으셨습니다. 동문으로 쫓겨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에덴동산은 서쪽에 있고 아담의 후손은 동산 동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도 특히 에덴 동쪽에 산 사람이 있지요? 가인입니다. 에덴 동편 늦 땅에 살았습니다. 스타인백의 소설 제목처럼 사람이 살면서 죄 짓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노아 홍수 뒤에도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 11:2).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사는 인생이 죄로 덮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게 뭘니까?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원문 첫 두 낱말이 바로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끝에 가서는 헛되다 했지요? 오늘 본문은 미괄식이 아니고 두괄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주제가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자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흠에서 온 줄 아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흠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도 압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창조자를 알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엘리어트는 바위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따 왔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 32:2). 이런 바위라면 참 안식처겠지요? 누가 그 사람입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무지에도 바위는 있고 그 아래는 그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는 안식 대신 더 끔찍한 공포를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바위 그늘로 가야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 분 안에서 광풍도 피하고 폭우도 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마른 땅 곧 황무지에 흐르는 냇물이며 곤비한 땅 곧 황무지에 있는 큰 바위 그늘입니다. 그리 피하는 자는 그 분의 의로움을 맛봅니다. 공평한 통치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 곧 죄에 짓눌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리는 삶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석에 자주 비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이 광야 곧 황무지였습니다. 목이 말라 타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때 다니던 광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에도 그런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 곁으로 가 거기 있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 121:5-6).

늦기 전에

그럼 언제 이 구원의 반석으로 가야 됩니까? 언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늦기 전에 해라, 아직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곧 젊을 때에 하라 했습니다. 늙으면 못 한다는 말 같은데 몇 살이 기준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인생 반 살기 전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잘 봅시다. 처음에는 청년의 때에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늙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흠은 땅으로 가고 신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하라는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뭘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곧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 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청년의 때 곧 젊은 시절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살아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죽기 직전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시다. 살아있다면 언제나 청년입니다. 살아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고, 살아 있다면 죽는 그 날까지 해야 할 일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감사의 삶

예수 믿는 우리도 황무지에 뒤섞여 살아갑니다. 동쪽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서쪽으로는 못 오게 불꽃의 칼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가는 걸음은 죄 지은 인간의 운명이면서 또한 사람이 사는 기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달마가 아니라도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동물처럼 숨을 쉬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멋지게 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해 죽였고 나를 위해 남을 짓밟았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속이고 빼앗고 배신하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흠에서 와 수십 년 살다가 결국 흠으로 돌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흠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허무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허무하고 두려운 삶을 기쁘고 보람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주셔서 참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올해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림자의 환영을 받게 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림자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일어나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연말의 교훈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지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한 해의 마지막 말고 우리 삶의 마지막, 온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 창조자를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죄를 지어 죽게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한 줌 흠의 공포였던 우리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의 삶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연말은 은혜의 기간이요 감사의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이 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날로 달로 해로 똑똑 잘라 놓으셔서 기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창조자를 알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3년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속에서 안식하면서 이 험한 황무지를 잘 살아가겠다고 결심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면 좋겠습니다. (권수경 목사)